

# 선배들 '졸졸' 박준표 병아리서 호랑이됐다

김병현·최영필 '정면승부'

김태영 '커브 던지는 요령'

양현중 '철저한 자기관리'

선배 장점 배우며 실력 '쑥쑥'



KIA 투수 박준표가 '육십쟁이'가 됐다. 2년차 '잠수함' 박준표는 요즘 선배들을 쫓아다니느라 정신없다. 어미새를 쫓듯이 졸졸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장점들을 묻고 배우느라 하루가 짧다.

좌충우돌 정신없이 흘러보냈던 신인 시절과는 다르게 하루하루가 특별하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다는 박준표다.

박준표는 "지난해에는 그냥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놀기도 하고 게으르게 살았던 것 같다. 올해는 내가 생각해도 많이 달라졌다. 경기가 있을 때면 일찍 자고 몸 관리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시즌을 보낸 후 박준표는 살을 찌우고 웨이트를 통해서 힘도 길렀다. 무엇보다 야구에 대한 욕심을 키웠다. 그 결과로 실력으로 나왔다. 캠프에서 매서운 공을 뿌리며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시범경기에서 예상치 못했던 부진에 빠지면서 2군에서 시즌을 시작했다. 선발 수업을 받으며 기회를 기다리던 박준표에게 6월 기회가 왔다. 1군에 호출된 박준표는 갑작스런 선발들의 조기 강판 속에서 언달아 선발급 톱릴리프로 활약을 하며 눈길을 사로잡았다. 자신감은 승부를 통해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박준표. 그의 발전 뒤에는 잘난 선배들이 있다. 선배들의 장점을 쭉쭉 흡수하면서 더 좋은 선수가 진화하고 있다.

먼저 '커브의 달인' 김태영을 통해 박준표는 커브질을 높였다.

"깜짝지처럼 선배들에게 붙어다닌다"고 웃은 박준표는 "김태영 선배님에게 커브로 승부하는 요령을 많이 배웠다. 계속해서 커브를 던질 때는 중으로도 던지고 횡으로도 던지면서 변화를 주라고 말씀하



박준표

셨다"고 설명했다.

노장의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 삼촌 같은 최영필과 잠수함 투수들의 우상이었던 김병현에게는 '정면 승부'를 배웠다.

박준표는 "최영필 선배님은 과감하게 승부를 하라고 조언을 해주신다. 적극적으로 싸움을 해야 이길 수 있다고 하신다. 김병현 선배님도 공 좋으니까 자신을 믿고 최고라는 생각으로 공을 던지라고 말씀하신다. 선배들의 얘기를 통해 자신감을 얻는다"고 말했다.

에이스 양현중도 박준표를 기르는 선배다. 캠프에서부터 각별하게 챙기던 후배. 움직일 하나하나가 박준표에게는 큰 가르침이다.

박준표는 "양현중 선배는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고 배우게 된다. 훌륭한 선배님들을 통해서 내가 많이 성장하는 느낌이다. 1군에 계속 남아서 선배들에게 더 많이 배우고 싶다. 그게 올 시즌 내 목표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

# 광주시, 양궁 사상 첫 전종목 결승 진출 '쾌거'

올림픽제패기념 회장기 대회

대학 정일기·정수라 동반우승

광주시 양궁선수단이 금메달 2개를 추가하며 회장기 양궁대회를 마쳤다. 최종 메달은 금메달 4, 은메달 6,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특히 광주시선수단은 양궁 사상 처음으로 대학부·일반부 모두 결승에 진출한 선수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학부에서는 남녀 모두 금빛 과녁을 명중했다.

호남대 정일기(2년)와 광주여대 정수라(1년)는 26일 충북 보은군에서 열린 '제31회 올림픽제패기념 회장기 대학실업양궁대회' 남녀 대학부 개인전 결승에서 각각 박성호(경기대 3년)와 박미란(동서대 1년)을 6-4로 꺾고 동반 우승 했다.

일반부에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광주시청)가 강민지(예천군청)에게 0-6으로 패해 은메달에 머물렀다. 기보배는 이번 대회에서 앞서 열린 50m에서 대회 신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을, 30m와 60m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한 데 이



대학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정수라(왼쪽부터)와 정일기. 일반부에서는 기보배가 은메달을 추가했다.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어 이날 은메달 1개를 추가했다.

단체전에서는 호남대와 광주여대가 각각 남녀 대학부 결승에 진출했지만 대전 배재대와 경북 안동대에 아쉽게 패해 준우승 했다.

하지만 광주시선수단은 양궁 사상 처음으로 대학부와 일반부 모두 결승에 진출한 시·도 대표단이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송철서 광주시양궁협회 전무이사는 "대학·일반부 모두 결승전에 진출한 것은 양궁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양궁협회의 경사"라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전국체전까지 강도높은 훈련을 지속해 한국 양궁의 새 역사를 써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광주시 배구협회, 호남대서 심판 양성 연수

내달 5~8일 63명 대상

사명감·이론·사례 등 교육

광주시배구협회(회장 고광삼)가 배구 심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광주시배구협회는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호남대체육관 및 화순하늬체육관에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대비한 국내 배구심판

양성 연수'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연수 대상은 광주·전남 심판자격 소유자 63명이다.

연수 내용은 심판원의 자세와 사명감, 경기·보조기록법 이론, 경기진행 아나운서 교육, 코보 심판 판정 사례, 선심·기록법 실기, 종합평가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6일과 7일에는 공식경기에 투입돼 선심원과 기록원 실습을 한다. 강사로는 이재화 광주시배구협회 전

무이사, 김진태 AVC 심판위원, 연현숙 아나운서, 서순길·황종래 코보 심판위원, 김종훈 국제심판 등이 나선다.

배구협회는 또 '배구 국제심판 양성을 위한 2014 배구심판 아카데미'도 연다. 호남대와 공동 개최하는 아카데미는 대학생과 일반 50명을 대상으로 열리며, 다음달 5일부터 10일까지 6일동안 호남대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박정욱기자 jwpark@

# 화순 중·고교, 전남도지사배 야구대회 동반 우승

中 최영기·高 임현목 MVP

화순중·고 야구부가 전라남도지사배 학생야구대회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화순중은 최근 여수 전남야구장에서 끝난 제 44회 전라남도지사배 학생야구대회에서 광양진월중을 10-9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최영기의 호투와 포수 박준형의 100% 도루 저지 능력 등 배터리의 활약 속 주장 김지수가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다.

화순고도 임현목의 화려한 방망이를 앞세워 순천 효천고를 상대로 9-8로 제압하고 우승팀이 됐다. 초동부에서는 강진북초가 대회 정상에 올랐다.

한편 전남도야구협회는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스포츠선상 및 수술 후 재활 전문병원인 연희한방병원(원장 최관준)의 의료지원을 받았다.

◇의상내역  
▲최우수상=박제범(강진북초)·최영

기(화순중)·임현목(화순고) ▲우수투수상=박건(강진북초)·정민수(화순중)·이문호(화순고) ▲감독상=정홍직(순천남산초)·김우신(광양진월중)·서호철(순천효천고) ▲타격상=박제범(강진북초)·김우중(광양진월중)·임현목(화순고) ▲미기상=이창식(순천남산초)·박준형(화순중)·신관식(순천효천고) ▲감독상=김태업(강진북초)·이기주(화순중)·김태완(화순고)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 '시민건강지킴이 사업' 하는 '시민건강지킴이 사업'을 벌였다.

광주시체육회는 협력병원인 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와 공동으로 26일 광주시 서구 금호종합복지회관에서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민건강지킴이 사업'을 벌였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 덕아웃 말·말·말

▲"다음에는 일찍 일어나야겠어요." 지난 25일 워지지컬하던 챔피언스필드에 정적이 돌았다. 일제히 마운드로 쏠린 시선. 양현중이 멍뚱은 웃음을 지으며 일어나서야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4회 SK 나주환과의 승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타구가 투수 얼굴쪽으로 향했고 "악"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양현중이 마운드에 쓰러졌다. 양현중이 바닥에 엎드린 채 미동도 하지 않으면서 경기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급히 관계자들이 뛰어나가고 선수들이 모인 뒤에야 양현중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행히 클러브에 맞고 공이 튀면서 부상은 입지 않았다. 아찔했

# 신인 박준태 "머리에 맞고라도 나가야죠"

던 순간을 남기고 9승에 성공한 양현중은 "지난 번에는 공 오는 것을 못보고 맞았는데 이번에는 눈 앞에 공이 보여서 많이 놀랐다. 숨도도 높고 몸이 힘들어서 쉬려고 좀 누워있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란 것 같다. 다음에는 일찍 일어나야겠다. 그리고 수비 연습 좀 해야겠다"고 여유를 보였다. 선동열 감독에게도 가슴 철렁했던 순간. 선 감독은 "많이 놀랐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 액션이든만"이라며 깔깔 웃었다.

▲"머리에 맞아서라도 나가야죠." 26일 KIA의 신인 외야수 박준태가 프로 첫 선발 출전의 기회를 얻었다. 김광현

이 SK 선발로 나선 이날 이대형을 대신해 중견수 겸 9번타자로 나서며 스타팅 멤버로 그라운드에 올랐다. 경기 전 첫 선발 출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다. 긴장되지는 않는다"던 박준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광현과의 승부다. 머리에라도 맞고 나가야겠다"고 신인 다운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챔피언스 필드 마운드에는 전직 메이저리거 김병현과 예비 메이저리거인 김광현의 맞대결이 펼쳐졌다. 관중석에는 김광현을 보기 위해 찾은 메이저리거 스카우트가 자리를 해 눈길을 끌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IA INSTITUTE OF BUILDING ARCHITECTS  
우수건축사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트라이슈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 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박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임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